

2022년 추수 감사절 특별 집회 표어

은 우주에서 유일하고도 영원한 복은 삼일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내주하는 자동적인 생명의 영의 법을 누릴 때,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며,
그 목표는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숨이신 그 영을 호흡하고,
똑같은 영적인 음료,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마시며,
하나님의 떡 곧 참떡이자 하늘에 속한 떡이자 생명의 떡이자 살아 있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고 그분으로 조성됨으로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서 단순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주님께 계속 열어 두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그분께 드려야 하고,
신성한 경륜의 기적적인 정상에 부합하도록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규칙적이고 정상적인 체험을 갖는
평범한 일상에 만족해야 한다.

성경 육십육 권의 계시 전체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신성한 삼일성은 하나님의 분배를 위해,
즉 하나님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 계신다.
하나님께서 삼일이신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고 일해 넣으실 수 있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국제 추수 감사절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메시지 1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통해 우리 안으로 임하는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

성경: 민 6:22-27, 고후 13:14, 계 22:1-2

- I. 온 우주에서 유일한 복은 삼일 하나님이며, 이 복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통해 우리 안으로 임하여 우리의 누림이 된다.
- A.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어 자신을 표현할 집을 얻으시려는 그분의 가정 행정인데, 이 집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이며,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수단이다 — 담전 1:3-4, 3:15, 롬 12:5, 엡 1:10, 3:8-9, 2:10.
 - B.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는 믿는 이들을 신화(神化)하여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끌어 오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그분 자신을 ‘사람화’하셨고, 그런 다음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화’하신다.
 - C.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가지신 의도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이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는 매일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것이다.
- II.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에서 우리는 제사장들의 축복의 본을 본다. 이 복은 구약의 복도 아니고 신약의 복도 아니다. 오히려 이 복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며,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 A.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은 아버지께 근거한 것이다 — 민 6:24.
 - 1. 아버지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갖 방면에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비교 엡 1:3). 아버지는 또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온갖 방면에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 주신다(비교 요 17:11, 15).
 - 2. 주님은 아버지께서 그분의 이름 안에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셨다(요 17:11). 이것은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 안에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이다. 이어서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셨다(요 17:15).
 - 3. 우리는 절대적으로 삼일 하나님의 분배 안에 지켜지고 완전히 악한 자 밖에 있는 그러한 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
 - B.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은 아들에 근거한 것이다 — 민 6:25.

1.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곧 태어나려 하실 때 사가라는 “돋는 해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라고 선언하였다. ‘돋는 해’는 신성한 삼일성 중에서 아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육체 되심이 빛을 비추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암시한다 — 마 4:16, 요 8:12.
 2. 민수기 6장 25절에서 ‘얼굴’이라는 단어는 임재를 의미한다. 우리를 비추시는 얼굴을 가지신 아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임재이시다 — 벧후 1:16-18, 마 17:1-2.
 3. 민수기 6장 25절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한다. 이 두 가지 요점이 함께 더해질 때,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 16, 17절의 말씀과 일치한다.
 4. 하나님의 육체 되심은 그분의 임재의 비춤이었으며, 이러한 비춤과 함께 은혜가 있었다. 이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이 은혜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다 — 고후 13:14.
- C.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은 그 영에 근거한 것이다 — 민 6:26.
1. 얼굴은 사람의 임재를 의미하고, 표정은 사람의 표현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에게 밝은 표정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확증하고 보증하고 약속하며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로 오셨으며, 성령은 하나님의 표정으로 오신다. 우리가 성령을 슬프시게 하면 그분의 표정은 어두워질 것이지만(엡 4:30),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대해 기뻐하실 것이며, 밝은 표정을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보증하시고 보장하시고 약속하시며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III.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있는 복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복과 동일하다. 이 복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며,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A.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은 생명의 원천이시자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 민 6:24, 시 36:8-9.
- B.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집의 기쁨진 것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 민 6:25.
- C.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의 강이신 성령의 교통이다 — 민 6:26.

IV.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주님 자신이고(요 1:17, 고전 15:10),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며(요일 4:8, 16), 그 영의 교통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그 영 자신이다 — 고후 13:14.

- A.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주님의 은혜가 먼저 언급된 것은 이 책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 고후 1:12, 4:15, 6:1, 8:1, 9, 9:8, 14, 12:9.
- B.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순환시키고 전달하시는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 안에서 공급이 되신다.
 1. 교회생활 전체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달려 있다.
 2.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계시된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의 흐름이 곧 우리의 영적 맥박이다.

C.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축복에서 삼일 하나님은 사람들의 누림을 위해 사람들에게 오신다. 바울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들 안으로 이끌었다.

1.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한 면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끄는 것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사랑과 은혜와 교통이신 하나님을 그들 안으로 이끌어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2. 사랑과 은혜와 교통은 우리의 누림을 위해 계시는 하나님의 세 단계이다. 곧 사랑은 안에 있는 것이고, 은혜는 사랑이 표현된 것이며, 교통은 은혜를 우리 안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3. 하나님의 사랑은 근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원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표현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 영의 교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그분의 신성한 미덕들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4.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신성한 계시는 신학적인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밀스럽고 놀라운 신성한 삼일성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 자신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시기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사도가 고린도의 믿는 이들에게 한 축복에서 가리키듯이,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인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 참여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며 소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과정을 거치시고 내적으로 순환하시는 삼일 하나님을 반드시 매일 누리며 이러한 삼일 하나님을 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주의 유일한 복이신 그분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여 예수님의 증거, 곧 예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 고후 13:14, 갈 3:14, 창 12:2, 빌 1:25, 계 1:2, 9-12.

V. 새 예루살렘 안에는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이 있다. 이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강의 이쪽과 저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 계 22:1-2상.

- A. 영원 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곧 어린양—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보좌에서 우리의 공급과 만족을 위해 생명나무와 함께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 B. 등이신 어린양은 빛이신 하나님으로 빛을 비춤으로써, 신성한 빛의 표현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을 밝게 하실 것이다 — 계 21:23, 22:5.
- C. 하나님과, 어린양과, 생명수로 상징되시는 그 영이신 삼일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분 자신을 (보좌의 권위로 암시되고 있는) 그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그분께서 구속하신 이들에게 분배하신다.
- D. 새 예루살렘의 길은 순금이고(계 21:21), 생명수의 강은 새 예루살렘의 길 가운데로 흐른다(22:1). 금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의 일상생활을 위한 유일한 길인 신성한 본성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본다.
- E. 성경 전체의 기록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삼일성—아버지와 아들과 영—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께서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백성과 연결되시고 연합되시고 합병되시어 그들의 영원한 복이 되신 것이다. 이러한 복은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의 궁극적인 성취이다 — 비교 계 21:3, 12, 14, 22, 22:1-2.

VI.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실망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과 심지어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무 중의 허무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실재가 아니며 심지어 교회생활 안에

있는 것도 실재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한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복과 몫이시다. 그분을 복으로 갖는 것은 어떠한 축복인가! 그분의 얼굴 곧 그분의 임재를 갖고, 매일 그분을 은혜로 누리는 것은 어떠한 축복인가! 우리는 고난을 겪을수록 은혜이신 그분을 더 많이 누린다. 우리에게 미소 짓고 보증하며 확증하는 그분의 표정을 갖는 것은 어떠한 축복인가! 또한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 그분과 함께 평안을 갖는 것은 어떠한 축복인가! 이것이 우리의 복이신 삼일 하나님이다. 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 민수기 라이프 스타디, 11장, 98-99쪽.